

“사각박스 존재 자체가 작품... 보는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국제갤러리 30일까지 '도널드 저드'展
20년 만의 국내 전시... 작품 14점 소개
회화·조각 경계 넘나드는 입체미 압권

“아버지는 추상적으로 물질을 표현하기보다 외부세계 자체를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로 자신의 작품세계가 한정되거나 규정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셨죠.”

가장 미국적인 작가 도널드 저드(1928~1994)의 아들 플라빈 저드(47)는 ‘기억된 아버지’의 모습을 끄집어냈다.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로널드 저드 개인전에 내한해 기자들과 만난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작품으로 만든 ‘도널드 저드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아들 플라빈 저드는 “아버지는 다른 사물을 상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오브제를 만들고자 했다”며 ‘미니멀리즘 작가’로 불린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맥시멀리스트’라고 강조했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저드는 ‘미니멀리즘 작가’로 불린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미술사적으로는 미니멀리즘의 대표 작가로 분류된다. 미니멀리즘(minimalism)이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단



국제갤러리 3관에 전시된 도널드 저드의 사각박스들이 열린 창 사이로 들어온 빛과 어울려 한 쪽의 추상화 같은 느낌을 전한다. [박현주 기자]

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던 예술의 흐름으로, 회화와 조각 등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최소한의 색상 사용해 기하학적인 뼈대만을 표현하는 단순한 형태의 미술작품이 주를 이루었다.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철학과 미술사를 공부한 작가는 1940년대 회화로 미술을 시작했다. 그러나 50년대 말 당시 회화의 관행에 반기를 들고 60년대 초부터 3차원의 오브제 제작에 나섰다. 저드는 1965년 발표한 에세이에서 ‘특정한 사물(specific object)’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며 명확하고 정제된 오브제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왜 추상표현주의가 평면에만 갇혀 있어야 하는가’가 의문이었다.

길에서 주워온 나무박스로 시작됐다. 평면에서 입체로 변한 작품은 1963년 전시에서 첫선을 보였다. 국제갤러리 3관에 전시된 빨간 나무박스가 초기작의 원조다. 두 면만 막힌 채 위 아래가 뚫려 ‘열려 있는 공간’을 보여준다. 나무에서 금속으로 소재가 이어졌다. 철강, 콘크리트, 플렉시글라스와 알루미늄 등 산업자재를 사용했다.

당시 추상표현주의, 미니멀리즘은 동양에서도 대세였다. 차이가 있다면, 미국 작가들이 산업자재를 사용한 데 비해 동양작가들은 돌 등 자연 소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엄격한 절제’는 서양과 동양에 차이가 없다.

색칠로만 장식된 지극히 단순한 박스 형태의 입체작품이 전시장 곳곳에 놓이고 걸렸다.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단순한 입체미가 압권이다. 치장 없는 완벽한 간결성 때문에 감상자는 복잡하다. 전시장에 툭툭 놓여진 사각박스. 어떻게 봐야 할까.

질문을 받은 아들 플라빈 저드는 좀 뜬금없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작품이 모두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사각형이다’ 말고는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보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아버지는 해석하거나 추론할 필요 없이 ‘오브제 그 자체로 보이는 그대로 이해가 되는 작품’을 한 거거든요.”

국제갤러리 신관 2관과 3관에서 그의 작품 시기 중 백미라고 할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작품 14점을 소개한다. 1995년 이후 20년 만의 국내 전시이고, 입체작품 개인전은 처음이다. 알루미늄 튜브를 얹은 빨간 상자 형태의 1991년 작품과 투명한 보라색으로 도금 처리된 알루미늄으로 만든 길이 6.4m의 1970년 작품 등이 30일까지 전시된다. (02)735-8449

박현주 기자